

# 영암교육청, '왕인학당 전통예절·인문학체험' 운영



영암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애)은 24일~27일까지 4일동안 영암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왕인학당 인성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30명 내외 인원 두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

실내 예절·야외 유적지 체험 15명씩 교대

지역에 대한 자부심·꿈 키워주는 전통수업

왕인학당 프로그램은 일본 아스카문화의 시조라 칭송받는 영암출신 왕인박사의 연대의식을 기리고, 영암의 아이들이 애郷심을 가짐과 동시에 전통예절을 바탕으로 역사와 평화를 사랑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밑거름을 마련해주고자 왕인학당과 왕인유적지에서 생생체험으로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코로나 상황과 학생들의 집중력을 고려하여 30명 내외의 인원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실내 예절체험과 야외 유적지 체험을 15명씩 교대로 운영한다.

실내 예절체험에서는 성균관 유생들의 유복을 직접 입고서 남녀인사예법, 왕인박사를 비

뒀한 영암지역 인물, 특산물, 자랑거리 등 학생들의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꿈을 키워주는 왕인학당 훈장님의 전통수업을 받고, 이어서 왕인유적지 탐방을 하면서 전문해설가로부터 아스카문화가 일본에 전달되어 꽃피는 과정과 우리 문화의 우수성에 대한 생생한 스토리를 듣는다.

24일 학생들을 인솔한 대불초등학교 신OO 선생님은 “코로나 상황이라 학생들의 체험 기회가 없어 아쉬웠는데 모처럼 학생들이 학교를 벗어나 의미 있는 전통 체험과 지역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았다. 통학버스를 이용해 짧은 시간에 올 수 있는 이런 의미

있는 체험장소가 지역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코로나 상황이지만 철저한 방역 속에서 이런 체험 행사가 많이 운영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불초 5학년 이OO 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밖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좋았지만, 성균관 유생들이 입고 공부하는 유복을 입고 훈장님의 수업을 들으니 내가 마치 조선 시대 선비가 된 느낌이었다. 지루할 것으로 생각했던 전통 예절도 재미있었다.”라고 했다.

영암교육지원청 김성애 교육장은 체험 시간 동안 절대로 마스크를 벗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면서 “영암의 아이들이 왕인박사의 상생 정신을 이어받아 세계로 뻗어나가는 훌륭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저마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교육환경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영암=조대호기자

## 광주시, 중·고 전체 수능 다음날 원격수업 실시

감염병 예방 및 수능시험 학교 방역 목적  
필수요원 제외 모든 교직원도 재택근무

광주 중·고등학교 전체 학년에 대해 수능 시험 다음날인 12월 4일 원격수업을 실시한다.

2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수능시험이 치러진 학교들의 방역을 위해 12월4일 전체 중·고등학교가 원격수업을 진행한다.

학생들이 대규모로 수능시험에 참여했고, 수능 시험장에 다중이 방문해 방역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광주 관내 중학교 교사의 31%, 고등학교 교사의 58%가 수능시험 감독관 등으로 참여해 집단감염 우려도 적지 않다는 것이 시교육청의 판단이다.

필수요원을 제외한 모든 교직원도 12월4일은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한편 시교육청은 수능시험을 앞두고 학생

및 교직원들의 생활방역 수칙 철저 준수를 당부했다.

다중 이용시설을 자제하고, 소모임과 친인척 간 교류도 자제를 당부했다.

장휘국 교육감은 “수능시험 교사장 방역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12월4일 전체 중·고등학교 대해 원격수업을 실시할 방침이다”며 “광주시교육청은 코로나19로부터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인호기자

## 전남교육청, 포스트코로나시대 중학교 과정 준비

2021학년도 교육과정·자유학년제 설명회 갖고 내실화 모색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2021학년도 중학교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발 빠르게 공유의 자리를 마련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24일 오후 전남도내 중학교 관리자와 시·군교육지원청 장학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남도 영상회의시스템을 통해 ‘2021학년도 중학교 교육과정 및 자유학년제 운영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교원들의 포스트 코로나 시

대 온·오프라인 미래교육 역량 강화와 2020학년도 자유학년제 전면 시행에 따른 학생 참여형 수업 및 과정중심평가 내실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교육청은 이날 설명회에서 2021학년도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방향을 설명한 데 이어 올 한 해 온·오프라인으로 운영한 중학교 교육과정 및 자유학년제 운영 사례, 블렌디드 수업 사례를 소개했다.

김정환기자

## 완도군-전남과학대학교, 평생직업교육 활성화 맞손

전문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기대

완도군과 전남과학대학교(총장 이은철)가 지난 24일 산·학·관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후진학 선도형 평생 직업 교육활성화를 통해 전문 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에 힘을 모아가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완도군은 전남과학대학교의 인적 자원을 활용한 평생 직업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전남과학대학교는 전남 22개 시·군 중 평생교육이 활성화 된 완도군이 파트너가 되어

교육부의 ‘전문대학의 지역사회를 위한 평생 직업 교육 허브 육성 정책’과 ‘포스트 코로나 미래 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 과제’ 관련 공모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남과학대학교(총장 이은철)는 2020년 평생교육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민 안경 보급 및 수리, 검안 봉사과 청년 농부 인큐베이팅 허브센터 구축 사업, 곡성 토란 품종 육성사업, 모바일 곡성 심정상품권 발행 및 운영 등을 추



진한 바 있다.

완도=김광수기자

## 순천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 교직원 ‘진로·취업지원 역량강화 교육’ 성료

순천대학교(총장 고영진)는 최근 교수 및 직원, 조교 등 73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2차 2020학년도 교직원 진로·취업지원 역량 강화 비대면 특강’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열린 2차 교육은 진로 및 취업 지도에 관한 체계적 교육을 통한 관심 제고를 위해 ‘대학생의 실전 취업 지원 전략’을 주제로 진행됐다.

공기업 및 대기업의 채용사이트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Alio를 활용하

여 채용정보를 검색하고 기업분석 창 활용법을 이해하는 특강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미래사회 속에 교직원의 진로 설계 및 취업 지원 능력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이번 교육은 1차 교직원 역량 교육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진로취업을 직접 지원하는 교직원 외에도 해당 주제에 관심이 있는 교직원 모두를 참여 대상으로 하였으며, 일정상 미처 참여치 못한 교직원을 위해 별도로 동영상 제작하여 공유하였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